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나타내는 보라색은 회개와 준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 공동체학교들이 입학식을 갖고 새학기를 개학합니다.
꾸러기학교 4일(목), 어린이학교 2일(화), 멋쟁이학교 7일(일)
- 공동생활위원회 정기회의가 4일(목)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9 호

2021년 2월 2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죽음을 통해 배우는 삶

예전에 멧쟁이학교 국어 과제로 내주었던 활동 하나가 기억납니다. '만약 자신이 곧 죽는다면?' 이란 주제로 이런저런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시민들의 인터뷰나 그런 상황에 정말로 처해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삶 그 자체를 '끊임없이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삶이 귀중하고 고귀한 만큼, 그것이 끝나는 충격은 대단히 큼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본인과,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삶의 끝이라는 인식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인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본능적으로 죽음과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바로 불사와 불로장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옛 진나라의 시황제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늙지 않게 해준다는 불로초를 맹렬하게 찾았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휘둘렀던 권력으로도,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멸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전설과 이야기로만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면서 죽음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반적으로 큰 만큼, 항상 죽음을 떠올린다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지금도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나, 전쟁터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대적 종교의 위협을 받는 해외의 교회 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죽게 되리란 것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셨습니다. 그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러 온 목적인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을 사형시키라고 요구하게 될 것임을 생생하게 보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도,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처형될 것도, 누가 자신을 배신할 것인지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정된 일이기엔 제자들에게 여러번 밝혀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서 감히 더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분조차 피하고 싶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서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요한복음 12:27)

예수님께서서는 최후를 준비하는 과정중에 제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두를 씻겨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이후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끝을 가능해볼 때에,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과 앞으로 남은 시간과, 재화와, 주변 관계들을 함께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결국 어떻게 죽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깊이 고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는 특별한 기간인 사순절 동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그리고 그분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도 함께 말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 말씀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
<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복음 14장

제목 : 참된 길, 평화의 길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진정행 권사

찬송 : 478 449 370 369 382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11 참된 길이신 예수님

12-21 성령님을 통해 연결되자.

22-31 평화를 가진 사람들

2. 내용의 의미(Why)

- 1)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십니다.
- 2)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 3) 우리는 평화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1) 예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합시다.
- 2) 성령님을 통해 연결되시다.
- 3) 참된 평화를 얻고 또한 전합시다.

의무나 판단에 따른 사역

“ 이로써...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 (요16:30-31)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나를 홀로 두고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내버려두고 의무감이나 자신의 특별한 판단에 따라 일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이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악이나 이에 딸린 형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써 혼돈과 슬픔과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그는 이를 깨닫고 부끄러움과 후회에 빠집니다.

우리는 훨씬 더 깊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사를 주님과 연결짓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들을 축복하실 것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식적인 결정은 주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영적인 실체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무감으로 사역을 하면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와 경쟁이 되는 또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쭐한 사람’이 되어 말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이와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대신에 우리의 의무감을 보좌에 앉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의 빛이나 의무감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걸으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뭔가를 할 때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할 때는 논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쉽게 조롱을 받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365일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28일자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서 42 : 1-4
67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히브리서 10 : 12-14

148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누가복음 2 : 41 - 51
93

“ 유월절, 예수님의 소명 ” 해은전도사
(통역: 정재훈전도사)

설교자
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20

455(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나송주 이윤희 / 봉헌위원 : 나송주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소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유월절,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은 부모님에 따라 늘 하던 대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절기가 끝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 12살 되신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부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도 늘 가셨던 길이라서 방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암튼 예수님의 부모님은 순례자의 무리가운데 친척과 이웃 어딘가에 있는 줄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이튿날 예수님의 부모는 성전에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서 세우심을 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갖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과 소명에 따라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부터 수난과 부활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됩니다.

어려운 시기더라고 사순절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으로 있어야 할 곳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우리 사랑방공동체의 표어처럼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그 곳에서 찬양과 기도,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길 소망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나송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쌀쌀한 기온이 훅 풀렸습니다. 개학을 앞에 두고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니 봄이 찾아온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얼마나 잘 놀까요? 겨울에 추위를 피해 집에서 주로 있던 애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꾸러기 친구들은 하루 빨리 개학하길 원한다고 소식이 들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서라도 선생님들이 2021년 1학기 개학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지난 주 공동체학교 연합졸업식이 온라인상에서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인사의 장이라 직접 만나서 졸업식을 할 수 없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꾸러기는 노엘이, 하민이, 루아 이렇게 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꾸러기에서 3년을 지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쪼꼬미 5살에서 가장 큰 형의 자리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노엘이, 하민, 루아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지낸 시간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상급 학교에 가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학 예배 전이라 꾸러기 친구들은 오지 않지만 꾸러기학교는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새 학기 준비를 위해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입학 예배 준비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준비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손꼽아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대면, 비대면이란 이분법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는것 같은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며 입학식 방법에 대한 결정의 기로에 섰지만 방역지침을 준수 하며 함께 입학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그래서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일들이 교사들에겐 있지만 밝은 마음으로 척척 일들을 해냅니다.

신입생, 편입생에게 따스한 환대가 스며들기를 바라며 교실정리, 가림막설치, 점심식사방법, 등하교차량등 한땀한땀 엮어 가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햇살도 따스합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새학기과 봄을 꿈꾸며 어린이소식이었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어느새 봄의 기운이 우리의 옆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은 여전히 이를 집 안에서 느껴야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봄학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기 중에 부족했던 교과 학업을 보충하는 기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압축된 교과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봄학기에는 특별히 동문 선생님들이 강사선생님으로 참여해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와 멋쟁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서 그런지, 남다른 열정과 창의력으로 멋쟁이 친구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멋쟁이 친구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헤어진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또 언제 오시냐고 아우성입니다. 동문들의 학교 사랑과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마음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주는 한주간 가정학습 기간을 가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후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등교할 수 있도록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지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서 코로나가 꺾어져서 다시 친구들과 열싸안고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기를 기도해봅니다.

< 교사 : 이돈희 >

하시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하나님도, 가야 할 길도, 해야 할 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요한복음 14:11)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돌이켜보니 내 생애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성장시켜준 사랑방공동체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행복이었고 은혜였음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방공동체도 창립 이후로 지향하던 바에 따라 필요한 때에 무림리로 이끌어주셨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로, 최선의 길로 이끌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한 가정, 한 가정이 귀합니다. 세상이 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대 풍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서로 나누고 섬기며 협동하기에 위로와 격려가 가능합니다. 댕가 없는 헌신, 오랫동안 기다리고 견디는 것도 배웁니다. 그렇지만 필요가 채워지는 풍성함도 경험하기에 점점 더 훈련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채워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공동체학교가 부럽습니다.

우리 때는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더욱 한계를 느끼며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과 인격 그리고 능력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르게 성장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서로 사랑, 피드백, 돌이킴, 용서, 섬김, 신실, 다름, 평화 등등. 명제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라는 다음 세대가 있기에 사랑방공동체 미래가 기대됩니다. 가정, 공동체, 사회에 중요한 모델적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이제 공동체가 더욱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일이 공동체의 갈 길과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용신 장로

<주요 정오기도회>

말 씬 : 갈라디아서 6:1-10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 평화 협상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후 전쟁 관련 민간인 사상자 수는 오히려 더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UNAMA에 따르면 작년 4분기의 민간인 사상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상자 중 어린이와 여성의 비중은 30%와 13%였다. 사상자의 62%는 탈레반 등 반정부 무장조직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22%는 정부군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간은 1970년대 말부터 소련 침공, 군벌 간 내전, 미군 침공, 각종 테러 등에 시달리고 있다. 2001년 이후에는 탈레반과 정부군 간 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동광원>

- 1) 동광원 각 분원의 사역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 2) 귀일원 공동체가 순적하고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여러 행사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쁘고 은혜롭게 이뤄지길
- 3) 동광원 귀일원 언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잘 양육될 수 있기를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건강상 회복하는 지체를 위해 (이월영, 하경임, 김영상, 이어직)

<생활공동체 소식>

어느덧 2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바람도 훈풍이 불어오면서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면, 나무와 식물들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꽃 피우기 위해 태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밤하늘이 몹시 밝았고 아름다웠습니다. 크게 뜬 보름달 안에는 옥토끼가 절구를 찧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코로나로 물든 우리의 일상도 건강한 자연의 모습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부터는 어린이 학교와 꾸러기 학교는 개학을 합니다. 방학을 지내고 만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전도사 >